

농업전망 2014-한우부문

사육마릿수 지난해보다 4.9% 준 277 만마리 예상
도매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농가 순이익 1++출하 제외하고 모든 등급서 적자
등급 간 가격차이도 커...고급육 생산노력 필요

<사진 2-3 컷, 그래프 1, 표 2>

올해 한우산업은 송아지 입식의향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육마릿수가 감소해 도매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지난해 한우농가는 낮은 송아지가격, 높은 사료가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출하등급 간 가격차이가 커 고급육 생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2 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전망 2014'를 개최하고 최근 한육우 사육동향과 올해 수급 및 가격전망을 이 같이 발표했다. 주요 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한·육우 사육마릿수 4.9%↓·도매가격 5.3%↑

농경연은 올해 한·육우 사육마릿수를 송아지 생산 감소와 지난해 도축 증가로 지난해 292 만마리보다 4.9% 감소한 277 만마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해 농가의 번식의향 위축으로 암소 도축이 늘고, 송아지 생산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내산 쇠고기 공급 감소가 예상되며 한우 평균 도매시장 가격이 kg 당 1 만 3420 원으로 지난해 1 만 2742 원보다 5.3%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줄어든 송아지 사육마릿수의 영향으로 2015 년 1 만 4126 원, 2018 년 1 만 4899 원, 2023 년 1 만 5038 원을 나타내는 등 당분간 도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2017 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육마릿수가 증가할 경우 한우 도매가격 상승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농경연은 설명했다.

마리당 생산비 558 만원인데 1 등급 출하가격 466 만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도매가격 등을 토대로 한우 비육우 농가소득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지난해 비육우 농가 순수익이 1++등급을 출하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등급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연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농가가 비육우 한 마리(600kg 기준)를 출하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비는 밀소 가격, 사료비, 방역비,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해 447 만원이다. 여기에

자가노동비(60 만원)를 비롯해 자본과 토지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마리당 생산비는 558 만 5000 원이 된다.

하지만 도매시장 출하가격은 1++등급 602 만 3000 원, 1+등급 522 만원, 1 등급 466 만 4000 원, 2 등급 379 만 4000 원, 3 등급 302 만 6000 원에 불과해 생산비에서 출하가격을 뺀 농가 순이익은 1++등급을 출하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등급 출하시 36 만 5000 원, 1 등급 출하시 92 만 1000 원 등 모든 등급에서 적자를 나타냈다.

번식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3 년 150 만원에 육박하던 번식우 마리당 농가소득은 2010 년 적자로 돌아서 10 년만인 지난해 마리당 60 만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높은 사료가격과 낮은 송아지가격으로 암소 도축이 늘고, 농가의 번식의향이 낮았던 영향으로 분석했다.

등급간 소득차도 커...1++등급~3 등급 소득차 300 만원

이와 함께 지난해 도매시장 kg 당 지육 등급별 경락가격 차이는 1++등급과 1+등급 2242 원, 1+등급과 1 등급 1553 원, 1 등급과 2 등급 2430 원, 2 등급과 3 등급 2143 원으로 조사돼 1++등급과 1+등급을 제외하고는 가격차이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등급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육우 수급동향과 전망’ 발표를 맡은 이형우 농경연 전문연구원은 “한우농가 수익성이 등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1++등급과 1+등급의 마리당 등급간 소득격차는 80 만원, 1++등급과 3 등급 사이에서 300 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문연구원은 “최근 한우산업은 규모화가 진행됨과 더불어 대농을 중심으로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로 한우 사육마릿수 변화 주기가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1 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지난해 10.2kg 에서 올해와 2015 년 10.3kg, 2018 년 10.5kg, 2023 년 11.1kg 으로 예상됐다.

<표>쇠고기 수급과 가격 전망

구분	생산(천톤)	수입(천톤)	1 인당소비(kg)	한우 지육가격(원/kg)
2013	257	255	10.2	12,742
2014	238	279	10.3	13,420
2015	221	294	10.3	14,126
2018	204	330	10.5	14,899
2023	239	333	11.1	15,038

<표> 한우 도매가격과 비육우 소득 추정

단위 : 천원/600kg

등급	도매가격(A)	경영비(B)	경영비(C)	소득(A-B)	순수익(A-C)
1++	6023	4470	5585	1553	438
1+	5220	750	-365		
1	4664	194	-921		
2	3794	-676	-1791		
3	3026	-1444	-2559		